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2008. 4

통일정세분석 2008-03

---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2008. 4

---

전 현 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서론	1
II.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융합 정책	3
1. 권력기구간 철저한 상호견제	3
2. 노·장·청 3합구조	4
3. 비공식모임의 활용	6
4. ‘정치적 탈락’ 활용	7
III. 최근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화 현황	9
1. 노동당 주요 간부 변동	9
2. 인민군 주요 간부 변동	13
3. 내각 및 사회단체 주요 간부 변동	17
IV. 대남 경협 라인의 변동과 그 의미	20
V.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평가	26
1. 분야별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	26
2. 국방위원회의 조직 강화	27
3. 노동당 및 내각의 정상화 조짐	27
4. 대남담당 부서에 대한 검열 및 재조직 완료	28
VI. 정책적 고려사항	29

## 표 · 그림 목차

<그림 II-1> 북한권력기관의 상호견제구도 .....	4
<표 II-1> 김정일위원장의 ‘식사내각’(추정) .....	7
<표 III-1> 노동당 주요인물 변동 .....	12
<표 III-2> 국방위원회 조직 .....	14
<표 III-3> 인민군 인사 변동 .....	16
<표 III-4> 내각 인물 변동 .....	19

## I. 서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다양한 통치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이념적으로는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한 ‘선군사상’ 강조
  -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에 입각한 국방위원회 강화
  -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계획경제 유지 하에 금강산, 개성, 라진·선봉지역 등에 대한 부분적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난 해결 노력
  - 김일성 주석의 ‘모기장론’에 입각하여 ‘자본’은 도입하되 ‘자본주의’는 철저히 배격하는 정책 구사
  - 군사적으로는 재래식 무력의 열악성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WMD) 개발
  
-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체제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은 ‘내부붕괴(implosion)’를 막기 위한 주민통제와 권력엘리트 통합 방안 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김정일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받기 시작한 1974년부터 권력엘리트에 대한 강력한 감시통제 장치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로 1990년대초의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연이은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상층 권력엘리트의 커다란 동요없이 현재까지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경제가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급격한 경제붕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붕괴’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그 중 유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엘리트 ‘응집력’ 강화 정책

- 북한 권력변동은 권력엘리트이든 비권력엘리트이든 북한내부 사람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중에서도 상층 권력엘리트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내부 경제난 및 북미간 갈등 등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분야별로 어떤 권력엘리트 인사  
변동을 구사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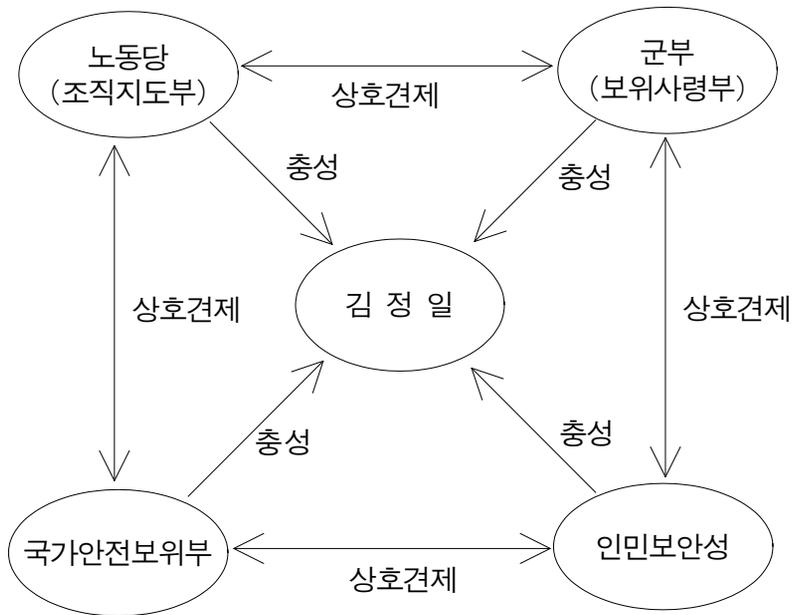
## II.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융합 정책

### 1. 권력기구간 철저한 상호견제

- 북한은 수령유일지배체제로서 수령이외에는 누구도 제2인자가 될 수 없음.
  - 북한권력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각, 헌법재판소 등에 분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총비서이자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개인에게 집중
  
- 그리고 당연한 논리이지만 1인권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기구와 권력엘리트들이 봉사하고 있음.
  - 특히 노동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군총정치국 및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소위 권력기관들은 사정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채, 반김정일세력 적발 및 분쇄의 향도적 역할 수행
  
- 이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지만 위의 권력기관들은 가끔 월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숙청’ 또는 ‘철직’ 사태가 발생함.
  - 역사적으로도 1950년대 당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1956년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하였고,
  - 1960년대 후반에는 군권이 비대하여 ‘군벌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 1970년대에는 보위부가 득세하여 김정일 후계체제를 위협한 경우도 존재
  
-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목도한 김정일위원장은 권력기관간 상호견제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성되었음.

- 당권이 비대하면 군부나 국가안전보위부 또는 인민보안성을 통해 견제하였고, 군권이 강화되면 당권을 통해 견제
-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간에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비리에 대해 상호간 조사하도록 하여 권력기관간 긴장관계를 유지 (<그림 II-1> 참조)

<그림 II-1> 북한권력기관의 상호견제구도



## 2. 노·장·청 3합구조

- 혁명 2세대인 김정일위원장은 아버지세대인 빨치산세대들을 ‘혁명 선배’로 각별한 예우를 하고 있음.

- 이들은 체제와 정권에 대한 도전만 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지위를 유지
  - 여기에는 국가원로들인 빨치산세대들을 예우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한편, 후대들이 자신을 ‘선배’로 존경하고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
  - 아울러 1960년대 후반 삼촌인 김영주와의 후계경쟁시 빨치산들이 자신으로의 후계구도를 지지한 것에 대한 보은적 차원도 존재
-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80~90대로서 실질적인 세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고 노쇠로 인해 실무적 기능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은 거의 2세대인 60대들이 행사하고 있음.
    - 2세대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 문제는 2세대들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순발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 난제에 휩싸여 있는 국가대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 보유
-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가전면에 나서서 일할 일군들을 40대로 교체했음.
    -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권호웅
    - 이들은 북한이 고도성장을 했던 60년대에 성장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강력
    - 물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았고, 외국에 대한 경험도 풍부
- 다만 북한은 경제가 가장 열악한 시기인 90년대에 태어나 자란 소위 ‘꽃제비세대’인 4세대들이 김일성 주석은 물론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고마움까지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면서 이들

에 대한 사상교양을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고 있음.<sup>1)</sup>

### 3. 비공식모임의 활용

- 김정일위원장은 공식 국가기구보다는 비공식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법치사회나 제도화된 사회가 아닌 북한에서는 이상할 것도 아니지만 김 위원장은 측근들과의 ‘연회정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엘리트간 결집력을 확보<sup>2)</sup>
  - 그는 소위 <표 II-1>처럼 ‘식사내각(kitchen cabinet)’을 구성하여 이곳에 초청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요 선택받은 자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
  - 만일 ‘식사 내각’에 끼지 못하면 ‘사회정치적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항상 충성의 긴장이 이완되지 않도록 독려
  
- 물론 이 방법은 긍정적·부정적 양 측면이 있음.
  - 긍정적인 측면은 공식석상에서 나누지 못한 대화를 함으로써 국정면의 이면을 살필 수 있는 점
  - 부정적 측면은 ‘간신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모임에 배제된 자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큰 반발심을 가질 가능성

---

1)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p. 384-396.

**<표 II-1> 김정일위원장의 ‘식사내각’(추정)**

분 야	성명(직책)
군	김명국(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영춘(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철(인민무력부장), 이명수(국방위원회 행정국장), 이용무(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장성우(3군단장), 현철해(국방위원회 상무부국장)
당	김양건(통일전선부장), 황병서·이용철(조직지도부 부부장), 전병호(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군수공업부 1부부장), 강관주(대외연락부장), 오극렬(당 작전부장, 인민군 총참모장 출신), 허명욱(36호실 부부장), 김기남·김국태(당 비서), 김시학(당학교장)
친인척	김경희(여동생), 장성택(매제, 당 행정부장)
근접보좌	강상춘(서기실장, 호위사령부 출신), 김동운(39호 실장), 임상중(38호 실장), 김창선(서기실 부실장, 인민무력부 출신), 김충일·이명재(비서실), 이수영(스위스 대사), 이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이제강·염기순(조직지도부)
내각	김영일(총리),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 출처: 『조선일보』, 2006년 7월 21일자를 중심으로 재구성

#### 4. ‘정치적 탈락’ 활용

-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간부가 ‘혁명화’를 거쳤을 정도로 모든 간부들은 예외없이 ‘철직’ 또는 ‘혁명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음.
  - 최근 들어서는 2004년에 ‘철직’된 장성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혁명화’는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된 1967년 이후 간부 ‘길들이기’의 가장 정형화된 패턴<sup>3)</sup>

- 북한에서는 반사회주의 및 반김정일적 행동만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동안의 혁명화 과정을 거친 이후 재기용되는 바, 이는 김정일의 ‘인덕정치’ 및 ‘광폭정치’를 과시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함과 함께 김정일 이외의 어느 누구도 파벌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으로 보임.
  - 역사적으로 최 광, 오진우, 김용순, 최룡해, 장성택 등 김정일과 가장 절친한 권력엘리트들 모두가 ‘혁명화’ 이후 재기용
  - 이는 ‘사회정치적생명’의 여탈권을 김정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절대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

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259.

### Ⅲ. 최근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화 현황

#### 1. 노동당 주요 간부 변동

- 2000년대에 들어, 노동당의 간부 중 가장 큰 부침을 겪은 인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으로서 1992년부터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해오다 2004년 ‘권력욕에 의한 분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벌을 받아 일선에서 퇴진하였음.<sup>4)</sup>
  - 최용수 인민보안상 등 그의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퇴진
- 그러나 장성택은 2005년 12월 노동당 근로단체부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으로 복귀했고, 2007년 10월초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음.<sup>5)</sup>
  - 행정부장은 당 내에서 인민보안성·재판소·검찰소와 근로단체부 및 수도건설부를 지도하는 핵심 요직
  - 장 부장의 측근인 이영복 전 남포시당 책임비서, 이영수 전 당 행정부 부부장 등도 복귀
- 아울러 2005년 정하철 선전담당 비서의 경질도 큰 파장을 가져온 사건으로서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검열과정에서 당자금을 유용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 2004년부터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일부 전문부서와 대남기구에

4) 『조선일보』, 2004년 4월 13일.

5) 『연합뉴스』, 2007년 11월 21일.

대한 개편 및 정비를 추진해 왔음. 노동당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됐음.

- 첫째는 노동당 조직과 인원의 슬림화로서 중앙당 비서국 22개 전문부서의 일부를 폐지·통합하는 조치가 취해져 경제정책검열부, 농업부 등이 폐지됐음.<sup>6)</sup>
  - 전반적으로 중앙당의 인원이 축소되고, 축소된 인원은 내각 경제부서나 인민무력부 등으로 전보된 것으로 추정
  - 당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원을 축소해 '실리'를 낼 수 있는 부서로 이동
  - 또 중앙·지방 당 일부 조직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유급당원을 20~30%정도 축소해 산업현장에 재배치
- 둘째는 장성택 제1부부장 계열의 인사이동과 그동안 공식으로 있던 전문부서의 책임자들을 새로 임명하는 작업이 진행됐음.
  - 노동당에 계획재정부가 신설되면서 박남기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 부장으로 임명됐고, 교육과학부장에 이광호가 임명
- 셋째는 내각 책임제의 실질적 시행으로서 노동당 내 경제부서의 내각 경제부서에 대한 간섭을 축소해 내각이 책임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음.
  - 총리책임제, 내각책임제 강화 의도가 엿보이는 바, 농업부, 경제정책검열부의 폐지는 경제회생을 추진하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파악

---

6) 『연합뉴스』, 2005년 6월 9일.

- 2007년 장성택이 행정부장에 임명되면서 최근 당의 위상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도 주목됨.
  -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월 1일 향후 지방에서는 군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중앙당의 내부지시 문건이 각 도(道)로 하달된 것으로 전언
  - 당의 위상강화 증거로서 1994년 이후 13년만인 2007년 10월 개최된 ‘전국당세포비서대회’가 있음.
  
- 2007년 국방위원회 참사 출신의 김양건 전 국제부장을 2006년 8월 임동옥부장 사망 이후 공석이었던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한 것도 당의 위상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임.(〈표 Ⅲ-1〉 참조)

<표 III-1> 노동당 주요인물 변동

성명(연령)	이전 직책	현재 직책	변동시점
박용석(80)	당 중앙위 검열위원장	사망	2007.3.17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	2005.10.22
림동옥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사망	2006.8.20
전금진		사망	2007.9
장성택(62)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당 중앙위 행정부장	2007.10월 초
김양건(70)	국방위원회 참사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2007.3
강동운 (미상)	제425기 계화군단장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	2007.1
김승연	제1군단 정치위원	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정운업(67)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철직(?)	2007.11
최승철(52)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부부장	철직(?)	2008.1
허수림(57)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북경개발사무소 소장	철직(?)	2008.1
최룡해(59)	당 총무부 부부장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2006.4
전종수(45)	조평통 서기국 참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2007.9
박용일(42)	조평통 서기국 부원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2002
백용천(46)		내각사무국 부장	2004.1
최용수(72)	인민보안상	철직(?)	2004.7
이영복(76)	남포시 당책임비서	해임후 복권	2007.11
정하철(75)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담당 비서	철직(?)	2005. 후반
박남기(74)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당 계획재정부장	2007
이광호(50)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과학교육부장	2003.4

## 2. 인민군 주요 간부 변동

- 2007년 북한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등 인민군 핵심부서의 최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음.
  - 그 배경은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망,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와병으로 인한 공백, 국방위원회의 조직 강화, 인민군 내부의 세대교체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07년에 이뤄진 북한군 인사 내용을 보면,
  - 김영춘 총참모장(차수, 2세대)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동
  - 후임 총참모장에 김격식 대장(3세대) 임명
  - 인민군 총정치국의 현철해(대장, 3세대)·박재경 부총국장(대장, 3세대)이 각각 국방위원회 상무부국장과 인민무력부 대외사업 담당 부부장으로 이동
  - 김기선 대장(3세대)·정태근 중장(3세대)이 후임으로 임명(현철해 대장이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으로 활동한다는 설도 있음.)
  - 인민군 총참모부 이명수 작전국장(대장, 3세대)이 국방위원회 행정 국장으로 승진
  - 후임에는 1990년대 초반 작전국장을 역임한 김명국 제108기계화 군단 사령관(대장, 3세대)이 임명
  - 425기계화군단 군단장이었던 강동윤 상장(3세대)은 노동당 중앙 위원회 부부장으로 이동
  
- 이보다 앞서 북한은 2004년 주상성 4군단장을 인민보안상에 임명했고,

2003년에는 제12군단장을 비롯해 인민군 군단장들을 40~50대, 사단·여단장들을 30~40대로 대폭 교체했음.<sup>7)</sup>

- 2007년에 단행된 군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표 III-2>에서 보는 것처럼 국방위원회의 조직 강화임.
  - 현철해 대장에 이어 이명수 대장 등 전임자들이 보장되면서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모양새를 띄기 시작했다는 점임. 특히 국방위원회에 전임으로 배치된 간부들은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종 시찰에 동행했던 측근이라는 점이 주목
  - 이에 따라 앞으로 국방위원회가 군출신 인사들 뿐 아니라 노동당이나 외무성, 각종 경제기구 등에서도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명실상부 북한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가능성
  - 물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당적 지도를 받는 형식은 유지

<표 III-2> 국방위원회 조직

이름	직책	겸직
김정일	위원장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조명록	제1부위원장	인민군 총정치국장, 당 군사위원
리용무	부위원장	-
김영춘	부위원장	-
김일철	위원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
백세봉	위원	제2경제위원장 <sup>8)</sup>
리명수	행정국장	
현철해	상무부국장	

7) 『연합뉴스』, 2004년 6월 6일.

8) 백세봉은 그동안 김정일위원장의 2남인 김정철의 가명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군사장비 개발, 수출을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으

- 아울러 1992년 이후 북한군 주력으로 제3세대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 확인됐음.
  - 군부인사의 경우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1992년 군인사때 대장으로 승진한 인사들까지를 2세대로 볼 수 있고, 이때 상장과 중장으로 진급한 인사를 3세대 군부의 중심인물로 봄.
- 1992년 인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1년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후 최고사령관 명의로 단행한 첫 인사였기 때문임.
  - 당시 대장 16명, 상장 28명, 중장 96명, 소장 524명 등 총 664명의 장령(장성)급에 대한 승진인사 단행
- 당시 인사 때 2세대로 분류되는 조명록, 김영춘, 전재선, 김일철 차수 등이 대장으로 승진했고, 3세대의 선두주자들인 현철해, 주상성, 김명국, 김정각, 김격식, 강동윤, 김성규(8군단장), 남상락(전 고사포사령관), 여춘석(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상장으로 진급했음.
  - 현철해는 1995년에 3년만에 대장으로, 1997년 2월 김격식, 주상성, 김성규, 박재경 등 4명이 대장으로 초고속으로 진급했고,
  - 박재경은 약간 특수한 경우로, 1993년 다른 장성보다 1년 늦게 상장이 됐지만 1997년 인사 때 대장으로 진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이 각별함을 과시
- 이들보다 약간 후배그룹으로서는 1992년 중장, 소장으로 승진한 후 2003년 7월 상장이 된 변인선, 김형룡, 최형관, 리태원, 심상대, 지영춘 등이 있음.

---

로 밝혀짐. 『연합뉴스』, 2008년 1월 13일. 한편 『연합뉴스』는 이미 2003년 12월 14일 이를 보도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03년 12월 14일.

- 정태근 신임 총정치국 부총국장도 이 때 중장으로 승진했는데, 이들은 현재 군단장, 군단 또는 사령부 정치위원으로 활동
- 1992년 중장으로 승진한 지영춘은 이후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국장을 거쳐 2003년 상장으로 승진한 후 현재 인민보안성 정치국장으로 재직
- 1992년 중장으로 승진한 김형룡은 제815기계화군단장을 거쳐 9군단장으로 활동(<표 III-3> 참조)

**<표 III-3> 인민군 인사 변동**

성명(연령)	이전 직책	현재 직책	변동시점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인민보안성)	사망	2006.10.5
지기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장	사망	2007.7.9
김룡연(92)	만경대혁명학원장	사망	2008.3.20
김원홍(62)		군보위사령관	2004
김영춘(72)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7.4
현철해(74)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국방위원회 상무부국장	2007
박재경(75)	총정치국 선전담당부국장	인민무력부 대외사업담당부국장	2007
김정각(62)	제820전차군단장	총정치국 제1부국장	2007
정태근	제3군단 정치위원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2007
김격식(68)	제2군단장	군총참모장	2007.4
김명국(68)	제108기계화군단사령관	총참모부 작전국장	2007.4
리명수(71)	총참모부 작전국장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2007
여춘석(78)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일성군사종합대학장	2008
정명도	서해함대사령관	해군사령관	2007.12
김윤심	해군사령관	철직(?)	2007.12
김기선(82)	인민무력부 간부국장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2003.8
주상성(75)	제4군단장	인민보안상	2004.7
지영춘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국장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2004.11
김형룡	815기계화 군단장	제9군단장	2003.7

### 3. 내각 및 사회단체 주요 간부 변동

- 2007년 4월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회의에서 김영일 육해운상이 신임 총리에 발탁됐음.
  - 그는 나진 해운대학을 졸업한 뒤 육해운성에서 말단 지도원으로 출발해 교통부문 전반을 지휘하는 육해운상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당의 경제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는 실무형의 경제관료
  - 1944년 생인 그는 1994년 정무원(지금의 내각) 해운부장에 승진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 특히 2000년대 초반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남포특급시 령남배수리 공장 현대화를 주도했는 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돈인 1억 달러를 투자해 5만t급 배 1척과 2만t급 배 2척을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를 수행
  - 그의 총리 발탁 배경에는 이같은 경제적 공로가 인정
  
- 또 과거 총리의 연령이 60대 후반 이후였다는 점에서 현재 북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세대교체의 의미도 있는 듯한 바, 내각의 상, 부상급 인사들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음.
  
- 2007년 10월에는 내각 부총리에 태종수가 추가 임명됐음.
  - 그는 1970년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를, 1976년에는 희천정밀기계 공장 지배인을 역임했으며 1980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위원에 올랐던 것으로 미뤄 경제분야 관료로 추정
  - 태 부총리는 지난 1980년대 이후 공식활동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내각 사무국 당위원회나 내각 산하 성당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

- 이외에도 <표 III-4>에서 처럼 지난해에는 박의춘 외무상(2007.5.18), 박남칠 전력공업상(2007.1.3), 김형식 석탄공업상(2007.9.15), 심기엽 수산상(2007.3.6), 라동희 육해운상(2007.10.2) 등이 새로 임명됐고, 2008년에 들어서는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2008.2.12), 리룡남 무역상(2008.3.18) 등이 새로 임명됐음.
- 2007년 김영일 총리 등장이후 내각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특히 내각 인사에서는 ‘3실주의’, 즉 실력, 실리, 실적이 중요시되고 있음.
  - 특히 대남, 경제, 외교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강력히 추진
- ‘3실주의’하에서 ‘북한판 386세대’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는 바, 내각의 상(장관급)급은 40~50대로 점차 채워지고 있음.
  - 문일봉 재정상, 이주오 경공업상, 최남균 수매양정상 등이 40대에 상으로 임명
  - 조선무역은행 총재에 오광철, 대외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에 백현봉 등이 등용
  -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의 경우, 40대의 나이에 남북장관급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발탁
- 내각이 젊어지면서 북한 경제의 실핏줄인 각 공장·기업소에서도 30~40대의 젊은층이 대거 기용됐음.
  - 김덕훈(46)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김형남(44)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은 40대로 차관급에 해당하는 특급기업소를 책임
  - 황영삼 대흥청년광산 지배인은 불과 34세의 나이로서 현장기사부터 시작해 실력을 인정받아 발탁
  - 경제 개건·현대화 본보기 공장으로 꼽히는 평양3·26전선공장 김석남 지배인도 44세

- 젊은 지배인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장에서 줄곧 경험을 축적

<표 Ⅲ-4> 내각 인물 변동

성명(연령)	이전 직책	현재 직책	변동시점
김영일(64)	내각 육·해운상	내각 총리	2007.4
박학선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체육지도위원장	2008.3.23
문제덕(63)	체육지도위원장	철직(?)	2008.3.23
태중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내각 부총리	2007.10
박의춘(76)	주 러시아 대사	내각 외무상	2007.5
리용남	무역성 부상	무역상	
신선호	전 주UN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주UN북한대표부대사	2008
박길연(65)	주UN북한대표부대사	퇴임	2008
로성실	여맹 중앙위 부위원장	여맹중앙위원장	2008.3.28
김병팔(74)	황해제철연합기업소지 배인 겸 당책임비서	직총위원장	2007.7
염순길	직총위원장	철직(?)	2007.7
리용철(80)		김일성청년동맹 제1비서	2007.12.7
김경호(50)	김일성청년동맹 제1비서	철직(?)	2007.12.7
박남철		전력공업상	2007.1.3
김형식		석탄공업상	2007.9.15
심기업		수산상	2007
라동희(74)	육해운성 참모장	육해운상	2007
문일봉(65)	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재정상	2003.9
이주오(52)	경공업 부상	경공업상	2003.9
최남균	조선축구협회 위원장	수매양정상	2003.9
권호웅(49)	내각책임참사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2004.5
오광철(4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조선무역은행 총재	미상
백현봉(54)	조선국제합영총회사 부이사장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 회 위원장	2004.6

#### IV. 대남 경협 라인의 변동과 그 의미

- 2007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민족경제협의회(민경협)와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일부 언론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중앙검찰소가 통일전선부(통전부) 등 대남기구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sup>9)</sup>
  - <연합뉴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작년 9월부터 통전부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다”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통전부에서 비행(비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통전부에 대한 당적 지도가 빈약하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시작됐다”고 전언
  
- 그 이유는 남쪽의 지원물자가 시장에서 암거래되는 등 개인비리가 불거지고, 특히 민족경제협의회(민경협) 관계자들이 남북교류를 빌미로 거액을 사취
  - 김정일 위원장은 민경협에 대한 중간 조사보고를 받고 “남쪽에서 올라온 밀가루 1g을 먹은 사람까지 모두 토해내도록 하라”고 지시해 모든 대남 관련 기구와 관련자들에게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언
  
- 특히 정운업 민경협 위원장은 2007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

9) 『동아일보』, 2008년 2월 11일. 한편 동 신문은 정운업 씨의 자택에서 2000만 달러(약 189억 원)가 발견돼 북한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음. 『동아일보』, 2008년 2월 12일.

현재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통전부 부부장들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짐.

- 정운업은 민경협 위원장 및 민경련(민경협 산하 대남민간경협기구) 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실세 국장이며 광명성무역회사 총사장을 역임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올해 들어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바, 일부 분석가는 최 부부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당 중앙검열위원회의 감찰을 받고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 2008년 2.16행사에 참석했던 해외교포는 “2.16행사 기간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최승철 부부장이 행사 기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신상에 이상이 생긴 것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증언

○ 민경협 관계자들의 부정비리문제는 언제가는 터질 사안이었다는 것이 중론인 바, 민경련이 경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착복하고 무책임한 합의 남발로 나중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한 남북경협가는 대북사업 투자금을 사기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민경련이라는 것이 남북경협에서 남측 사업자가 대북투자를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창구인데 민경련의 횡포가 엄청나게 크고 발목을 잡는 제도다”라고 말하고, “대북 투자를 타진하는 사람을 접하는 데, 솔직히 (투자를)말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증언

○ 그러나 2007년 시작된 민경협과 대남라인에 대한 검열이 강도 높게 진행된 데는 이 사건이 단순 비리사건이 아니라는 북한 최고위층의 판단

때문이었다는 해석도 있음.

- 즉, 돈의 착복도 문제지만 해외동포의 청원서가 상층부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중간에서 묵살된 것이 더 큰 문제로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노동당과 경협 관련 간부들의 ‘반당해당행위’로 규정지은 것으로 추정
- 검열을 통해 정운업 민경협 위원장 등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간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고, 해외동포위원회 미주국장이 철직
-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사업을 담당했던 최승철 부부장도 책임소재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언
- 최승철 부부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향후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sup>10)</sup>

○ 한편, 민경련에 대한 조사가 아태평화위, 민화협과의 기관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 일부 분석가는 “사업 성격에서 민화협과 민경련은 구분이 모호하지만 민경련은 내각 중심이고 민화협은 당의 외곽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민경련이) 당쪽에 밀리는 게 아닌가 싶다”며 “민경련의 인적 쇄신을 위해 몇몇 사람을 철직하거나 구속하고 새로운 사람을 넣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
- 실제로 2004년 업무 분장이후 두 기관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존재

○ 그동안 북한의 경제관료와 남북경협 관계자들은 2004년 남북경협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 남북경협 기관 뿐 아니라 노동당, 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너도나도

---

10) 일부에서는 최승철이 금전수수 문제가 아닌 개인의 과시적 행동 때문에 3~4개월간 ‘혁명화’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함. 『조선일보』, 2008년 2월 27일.

남북 경제교류사업에 뛰어들면서 중복계약, 실현성이 떨어지는 사업 계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등장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 남북경협 기구의 단일화 요구는 2004년 6월 9일 김정일 위원장의 ‘6월 9일 지침’에 따라서 교통정리됨.
  - 이 지침에 따라 이전까지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을 담당하던 민경련의 상급기관으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내각 직속으로 신설
  -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내각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취해진 조치로서 당, 군 등 비경제부문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가 내각에 이관되면서 축소
  
- 반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에 굼직굼직한 경협사업을 성사시켰던 아태위원회는 한동안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적 위상도 현저하게 떨어졌음.
  - 2003년 김용순 아태위원장이 사망한데 이어 2007년 9월 송호경 아태부위원장이 사망했고, 2004년 오랫동안 대남사업의 실력자로 통했던 김완수 부위원장이 조국전선 서기국장으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
  
- 그러나 2004년 9월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 바, 민경협이 내각 직속인 만큼 내각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노동당 우위의 북 체제 속성상 당내 기구인 민화협의 당적 지도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 문제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2007년 9월 1일 ‘9월 1일 지침’을 통해 민경협이 남쪽과 경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대남사업을 담당해온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의 지도를 받도록 교시
  - ‘9월 1일 지침’에 따라 북한은 남측의 대북 지원단체나 민간기업의

대북 창구를 민화협과 민경련이 뚜렷한 영역구분없이 나눠맡아 오다가 단체와의 협력창구는 민화협으로 단일화하고, 민경련은 남측기업의 투자와 교역 등 경협사업에 주력하도록 정비했고, 몇 년 간에 걸쳐 업무 조정을 단행<sup>11)</sup>

- 2007년 민경련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지기 전까지 두 기관간의 알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것은 민경협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계획재정부와 아태평화위, 민화협을 산하에 두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갈등이란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뤄진 검열을 통해 아태, 민화협 등 통일전선부 외곽단체보다는 민경협, 민경련 간부들의 퇴진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앞으로 경협 전반에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입김이 더 세 질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계획재정부 산하였던 민경련이 앞으로 아태평화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돼 남북 경협과 사회 교류사업(민족화해협의회 관할)이 아태평화위로 통일되게 될 것으로 전망
- 이와 별개로 북한은 장성택 행정부장의 주도로 각종 부패·비리 현상에 대해 사정(査正)을 강화하고 있음.
  - 이것은 “당 행정부가 부활하고 장성택이 행정부장에 임명돼 사정작업을 지휘하게 된 것은 장성택이 2인자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민생 치안을 포함한 사회기강 전반을 다잡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

---

11) 『연합뉴스』, 2007년 9월 7일.

- 북한 사회에 부패비리가 만연한 정도와 그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문제를 보는 심각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것임.
  - 특히,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고와 의약품 부족 등으로 인해 마약 복용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 마약소지자를 총살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도 최근 이뤄진 것으로 전언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sup>12)</sup>은 “인민보안성은 2월 1일부터 (지역) 보안서가 검찰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보안서에서 구형을 내리면 검찰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에 넘겨 최종적으로 판결하게 된다”고 전해 장성택 휘하 당 행정부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했음.
  
-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남북교류에 관계하고 있는 내각과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구조조정은 남북대화과 경협에 부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서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에 일정하게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대남기관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창구의 일원화는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남북경협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12)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115호, 2008년 3월 14일.

## V.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평가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음.

### 1. 분야별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

- 2007년부터 북한이 군부, 외교 및 대남라인, 내각 등에서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단행하여 그 배경과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가 주목됨.
- 고위직과 하위직을 막론해 거의 모든 당 간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고강도 기강단속 후에 벌어진 최근의 인사태풍은 북한의 고위층을 ‘혁명 3세대’로 급격히 개편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됨.
- 또한 시장경제의 확산, 노동당의 기강 해이 등으로 흐트러진 사회체제를 추스리려는 의도도 보임.
  -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던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구로 거듭나고 있고, 선군정치와 함께 축소됐던 노동당의 위상이 제고되는 현상 등장
  - 특히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민족경제협의회와 통일전선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은 앞으로 대남정책 기조와 경협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 국방위원회의 조직 강화

- 그동안 국방위원회는 상부구조만 있고 하부구조가 없는 상태였으나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통치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sup>13)</sup>
  - 국방위원회가 개최될 시 인민무력부 작전국 요원들이 사무보좌를 했던 것과는 달리 당, 군, 경제, 외교, 대남 등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들 수 백명이 포진하는 상설조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사실상 최고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는 2012년을 목표로 한 ‘강성대국’ 건설의 최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일종의 ‘군부개발독재’ 기구가 되지 않을까 판단
  - 향후 북미간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선군실리주의’적 차원에서 북미관계 개선 및 해외자본 유치 등을 실질적으로 전담할 가능성 존재

## 3. 노동당 및 내각의 정상화 조짐

- ‘선군정치’로 인해 권한이 약화되었던 노동당과 내각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징후가 등장함.
  - 국방위원회가 사실상의 국가최고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노동당은 수령과 인민간의 인전대로서 당총비서이면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을 당차원에서 적극 도와야 할 의무
  - 이를 위해서는 와해된 당세포 조직을 복원하고 당에 떨어진 당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바, 당이 국방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강성대국 건설’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

13) 『연합뉴스』, 2007년 5월 20일.

- 내각 또한 각 부서가 고유의 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향후 있을 지도 모를 부분개방에 대비해야하고, 만일 남한과의 부문별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인 바, 이는 현재 남한 정부가 구체적인 경협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지고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

#### 4. 대남담당 부서에 대한 검열 및 재조직 완료

- 대남부서에 대한 비리조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진용이 정립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07년 11월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및 대통령당선자 시기는 물론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비난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거명공격하기 시작<sup>14)</sup>
  -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내부의 대남 라인에 대한 재구성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바, 이제 대남 강경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김양건 통전부장을 중심으로 한 대남라인이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었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들은 비교적 덜 부패한 인물들로서 남한과 ‘실리주의적’ 입장에서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sup>15)</sup>

14) 『로동신문』, 2008년 4월 1일.

15) 고재홍, “북한 파워엘리트의 교체는 김정일의 작품인가?,” 『북한』 (서울: 북한연구소, 2008년 4월호), p. 84.

## VI. 정책적 고려사항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은 김정일위원장의 전통적인 권력엘리트 통제방식인 바,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강화되고 일상적인 정책 기구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로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자원 도입을 통해 ‘북한식 개발독재’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북한의 대남라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작업은 오히려 북한대남담당 엘리트들의 순수화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실용주의 노선과 맞물려 건전한 남북경협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자제하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관계 진전을 보아가면서 2008년 상반기내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sup>16)</sup>
  - 다만 식량 및 비료 등 인도주의적 사안은 4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정부간 대화와 무관하게 조기진행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지속 및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바람직

---

16)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기자회견시 그 이전과는 달리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기보다 특별한 관계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연합뉴스』, 2008년 4월 13일.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장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 I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东北亚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2006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전국 당세포비서 대회」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Studies Series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3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4월 일
발행일	2008년 4월 일

---